

기고

최창원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정책선거, 유권자와 후보자 공동의 노력으로

얼마 전 하두에 오른 TV인기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이 종영되었다. 그동안 시청자들은 미스터트롯 참여자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귀가 즐거웠을 동시에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디션프로그램에서 사상 유례없는 773만 문자 투표수에 의해 우승자가 결정되었다. 미스터트롯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과 동시에 시청자들은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실력·퍼포먼스·가창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고 고민하여 우승자를 결정했을 것이다. 이처럼 미스터트롯 참여자·시청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한 달 여 남짓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스터트롯 참여자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참여자로 부를 수 있는 후보자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유능한 후보자가 아닌 학연·지역·혈연 등을 각종 연구주의에 의하거나 정당 인기주의에 과도하게 편승하여 비합리적으로 선택하면 무용지물이다. 유권자로서 연구주의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정당·후보자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가장 합당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후보자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했으면 왜 그 공약을 제시했는지, 그 공약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권자는 당선자의 공약이행을 지켜보고 다음 선거에서 당선자를 지지하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 즉, 정책선거란 유권자와 후보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공동의 노력과 관심으로 선거가 치러질 때 비로소 정책선거가 뿌리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후보자는 선거공보·신문·방송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이나 대담·토론회를 통해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 계획 등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책선거로 활용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의 정책·공약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공개하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알리미

(policy.nec.go.kr)' 사이트와 정당·후보자의 공약개발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issue.nec.go.kr)' 및 유권자 공약 제안 활성화를 위한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 서비스 등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및 서비스를 통하여 후보자의 정보를 비롯하여 정책에 관한 자료가 수록된 정당·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고, 거주하는 지역의 이슈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국민생활 관련 공약 이슈를 제시하는 등 유권자와 정당·후보자 간 정책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현실 속에서 정책선거 또한 관심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각종 연구주의·정당 중심이 아닌 정책·공약을 바탕으로 유권자 표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위에서 명시한 방법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社 說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47명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방대본 발표 기준으로 2월 20일 이후 46일 만이다.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적다는 점은 있으나 확진자 증가 수가 최근까지도 100명 안팎을 유지한 만큼 이날 감소 폭은 눈길을 끈다.

이처럼 통계 수치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에 힘을 보탠다. 하지만 하루 수치로 추이를 선별리 판단할 수는 없다. 나라 안팎으로 감염 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20명은 수도권에서 나왔고, 해외 유입 사례가 신규 확진자의 34%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2주간 해외유입 관련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사태 초기 일시적 추세에 안도했다가 허를 찔린 전례들이 있었던 만큼 방심은 금물이

다. 중대본에 따르면 교회와 병원 등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진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신규 확진자의 5~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감염이 지역사회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완치 후 재확진된 사례도 51건이나 된다. 여차하면 손쓸 새도 없이 감염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당초 5일에서 오는 19일까지 연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감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시민 사회의 자발적 동참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공동체 생활을 위협하는 일탈행위는 다이상 없어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21대 4·15총선, 코로나19 예방이 시작이다

2020년 4월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1948년 5월 10일 첫 총선 이후에 선거권의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실시되는 첫 선거이다.

18세 청소년과 함께 실시하는 첫 선거인 투표장에는 기존 선거 때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소를 찾아와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대응 '심각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건이 좋

지는 못하지만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들은 코로나19로부터 투표장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투표소의 사전방역 등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고, 특히 투표가 종료된 이후 투표장소로 사용된 체육관, 마 율회관 등 추후 사용할 것을 대비하여 사후방역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투표권을 실시하는 우리도 역

시 함께 동참하여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특히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에는 개인간 간격을 최대한 이격 할 필요가 있고, 투표를 하기 위해 사용된 물품들을 만지기 전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의 모습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는 청소년들 역시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투표소에 오게 된다. 첫 투표권 행사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위와 같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일상화된 시기에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선거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으로서 공중보건에 대한 준수를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성인의 질서 의식에 대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현 시점에서 서로가 지킬 것을 지켜가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며, 제2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재훈 / 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장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p>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p> <p>호남신문</p> <p>대표전화 (062) 229-6000</p> <p>광고국 (062) 224-5800</p> <p>기사제보 (062) 971-7400</p> <p>팩스 (062) 222-5547</p>	<p>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p> <p>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p> <p>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p> <p>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p> <p>Tel (02) 2238-0003</p> <p>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p> <p>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

